

배우자의 신경증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내 정서억제의 매개효과*

김정우** · 이한별*** · 양혜원**** · 천정은***** · 김영훈*****

■ 국문초록 ■

혼인관계에 있어 배우자의 신경증과 관계만족도의 부적 관계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원인이 되는 구체적 심리 기제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적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지된 배우자의 신경증과 결혼만족도 간 관계를 정서억제가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연구 1, 한국, N=1,179; 연구 2, 한국과 미국, N=2,992). 결과적으로, 인지된 배우자의 신경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서억제 수준이 상승하며 종국에 낮은 결혼만족도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억제의 매개효과가 지지되었다. 이는 신경증적 기질의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이 불만족스러운 이유가 관계 내 정서억제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정서억제의 매개효과에 대한 성별, 정서가, 정서 발생 맥락의 조절효과에 대해 탐색하였으나, 오직 성별의 조절효과만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한국 표본에 제한하여 남성에 비해 여성의 정서억제 수준이 배우자의 신경증에 더욱 큰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배우자의 신경증과 자신의 결혼만족도 간 부적 관계를 강화하였다.

주제어: 정서억제, 신경증, 결혼만족도, 결혼

* 이 논문은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 A2A03049535). 또한, 이 논문은 2021년도 연세 시그니처 연구클러스터 사업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2021-22-0005).

** 김정우(주저자)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 과정에 재학 중이다. 현재 연세대학교 사회 및 문화 심리 연구실에서 활동하고 있다.

E-mail: johncab1206@gmail.com

*** 이한별(공동저자)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 과정에 재학 중이다. 현재 연세대학교 사회 및 문화 심리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다.

E-mail: hanbyeol429@yonsei.ac.kr

**** 양혜원(공동저자)은 서강대학교에서 영문학과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 과정에 재학 중이다. 현재 연세대학교 사회 및 문화 심리 연구실에서 부부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mail: hyewon1161@gmail.com

***** 천정은(공동저자)은 예모리 대학교에서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학교 사회 및 문화 심리 연구실에서 부부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mail: choen0910@hanmail.net

***** 김영훈(교신저자)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문화심리, 긍정심리, 부부관계심리이다. E-mail: younghoonkim@gmail.com

I. 서론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성격은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Brass & Guy, 2004; Edlund & Sagarin, 2010). 이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생활에 있어 성격이 주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믿고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성격과 결혼관계에 대한 연구는 해당 믿음이 사실임을 경험적으로 증명하고 있다(Ahmadi et al., 2020; Kelly & Conley, 1987; Sayehmiri et al., 2020; Terman & Bottenweiser, 1935; Terman et al., 1938). 특히 성격을 외향성, 성실성, 원만성, 개방성, 신경증의 5가지 하위 개념으로 나누고 있는 McCrae와 Costa (1987)의 5요인 모델을 기준으로 각 성격요인이 혼인 관계 내에서 가지는 독립적인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Dyrenforth et al., 2010; Malouff et al., 2010; Shiota & Levenson, 2007).

성격의 5요인 중 신경증은 불안, 걱정, 짜증, 질투, 우울, 그리고 외로움 등 부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성격으로 정의되며 다수의 연구가 본인의 신경증과 결혼만족도의 부적 연관성을 지속적으로 증명해왔다(Karney & Bradbury, 1997; Kelly & Conley, 1987; Thompson, 2008; Zaleski & Galkowska, 1978). 예를 들어, Malouff 외(2010)가 3,848 명의 참가자 응답을 분석한 대규모 메타연구에 의하면 신경증이 높은 사람일수록 낮은 결혼만족도를 보고하였다. 더불어 45년간 부부를 추적하여 연구한 Kelly와 Conely(1987)의 종단 연구에 의하면 본인의 신경증은 낮은 결혼만족도와 강한 연관성을 가졌으며, 이후 부부들의 이혼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특히나 신경증은 본인의 결혼만족도에 부적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Fisher & McNulty, 2008; Lavee & Ben-Ari, 2004). 즉 신경증이 높은 개인들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들 역시 결혼 관계 내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신경증이 높은 배우자가 행사하는 영향력(“배우자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암시한다. 그러나 그간 연구는 신경증과 가진 개인이 왜 결혼만족도가 낮은지(예: 부정적 인식 McNulty, 2008)를 규명하는데 치중했으며, 배우자의 신경증이 높은 경우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 낮은 결혼만족도를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효과에 집중하여, 신경증이 높은 배우자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개인에게 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신경증이 높은 배우자의 영향력을 탐구하는 데 있어, 본 연구는 정서억제라는 행동

특성에 집중하고자 한다. 신경증의 대표적 특성이 정서적 불안정성(emotional stability)인 만큼, 대인 관계에 있어 상대방의 정서 표현에 영향을 미칠 확률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구체적으로, 혼인 관계 내에서 배우자의 신경증이 높을수록 상대방에게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며 이는 결국 불만족스러운 결혼 경험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측한다. 이에 더해, 정서억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세 가지 주제를 고려한 탐색적 분석을 부차적으로 실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정서억제의 매개효과가 성차가 나타나는지, 억제하는 정서의 정서가(emotional valence)의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억제하는 정서의 발생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선행 연구는 혼인 관계 내의 정서 표현의 성차가 존재함을 밝힌 바 있으며(LaFrance & Banaji, 1992; Gross & John, 2003), 정서 표현의 결과나 의도가 정서거나 정서 발생맥락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추가적인 탐색은 신경증, 정서억제, 그리고 관계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배우자의 신경증의 부정적 효과를 반복 검증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신경증과 결혼만족도 간 부적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심리적 기제를 밝힌다는 점에서 부부 연구 분야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나아가, 신경증이라는 기질적 변인에 대해 정서억제라는 개입 가능한 변인을 탐구함으로써 부부 상담 분야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선행 연구 고찰과 연구모형

1. 선행 연구 고찰

1) 배우자의 신경증과 정서억제

배우자가 신경증적 기질을 가진 사람인 경우, 정서억제 전략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택될 수 있다.

먼저, 신경증이 높은 배우자에게 정서를 표출하는 것은 갈등을 초래할 확률이 높다. 이는 신경증이 적대적 태도(angry hostility)와 충동성(impulsivity)을 주요 하위특성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Costa Jr et al., 1995). 실제로 Donnellan 외

(2004)의 연구에 의하면 신경증은 혼인 관계 내의 부정적인 상호작용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Caughlin 외(2000)의 연구는 신경증과 부정적인 대화 패턴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이를 고려해볼 때 신경증이 높은 배우자를 가진 사람은 갈등의 시작이나 심화를 막기 위해 단기적인 철회 전략으로 정서억제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존 연구는 정서 표출이 관계 지향적 목표(예: 관계 개선, 갈등 해결)를 위해서 행해진 경우에도 신경증적 기질을 지닌 배우자가 그 의도를 왜곡하고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암시한다. Bradbury와 Fincham(1991)에 의하면 신경증이 높은 사람은 관계 내의 부정적 사건에 과민 반응을 보이며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인다. 구체적인 예로 Karney와 Bradbury(2000)의 연구에서 신경증이 높은 사람들은 배우자의 부정적인 행동이 상황보다는 배우자의 변하지 않는 기질에서 유래한다고 해석하며 비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신경증이 높은 사람을 향한 정서표출은 본래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 인간의 정서표출은 사회적인 목표를 담고 있고 (Keltner et al., 2006), 상대방이 이에 응해줄지에 따라 행해지는 관계맥락-의존적인 행동이다(Clark & Finkel, 2005; Von Culin et al., 2018).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슬픔을 표하는 것은 위로와 공감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며, 분노를 표하는 것은 상대방의 변화를 바라는 목적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배우자는 이와 같은 목적에 충실히 반응해주기 어렵다. 부정적인 정서에 민감한 탓에 적절한 위로와 공감보다는 스트레스의 전이에서 그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Rusting & Larsen, 1997). 오히려 정서표출이 신경증적 기질을 가진 배우자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감정을 숨기는 일이 잦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컨대, 신경증이 높은 배우자에게 정서를 드러내는 것은 갈등을 초래하거나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배우자가 왜곡하여 해석할 확률이 있으며, 본래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용이 크다. 이에 신경증적 기질의 남편 혹은 부인을 가진 사람은 당장의 비용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인 기제로 정서억제 전략을 채택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정서억제는 단기적인 회피전략으로는 기능할지 모르나, 개인적, 사회적 비용이 크며 관계 내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기술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2) 정서억제와 결혼

정서억제는 Gross와 Levenson (1993)에 의해 제시된 정서조절 전략 중 하나로, “정서 각성 중 의식적인 표현 억제”로 정의할 수 있다. 인간관계 내에서 경험한 정서를 여과 없이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은 때때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에(예: 신경증적 기질이 있는 배우자와의 결혼생활) 사람들은 부득이하게 정서를 숨기고는 한다(Kalokerinos et al., 2014; Kashdan et al., 2007). 그러나 정서억제는 건강하지 못한 정서조절 전략으로(Gross, 1998),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정서억제는 사용자의 인지적 자원을 크게 소모하여 기억 손상을 일으키며(Richards et al., 2003; Richards & Gross, 2000), 심화된 생리적 반응(Jackson et al., 2000)을 초래하고 다양한 정신 질환과 큰 연관성을 보이기도 한다(Aldao et al., 2010). 나아가 정서억제는 정서조절 전략이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실제로 주관적 정서 경험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Gross, 1998). 종합해보면, 정서억제는 사용자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는 역기능적 전략으로 여겨진다.

나아가, 다수의 연구는 정서억제가 개인적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개인의 정서를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낮은 사회적 만족도와 낮은 사회적 친밀감을 보고하였다(Srivastava et al., 2009). 정서억제의 사회적 비용은 비단 개인의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타인의 시선에서도 드러난다. 정서억제 전략은 낮은 사회적 지지와 연관되어 있으며 타인에 의해 보고된 호감도 또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Srivastava et al., 2009). 이에 더해 Butler 외(2003)는 실험을 통해 정서를 억제하는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혈압 증가를 관찰하였으며 정서억제가 사회적 유대를 방해함을 보여주었다.

정서억제의 사회적 비용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더욱 부각된다. 특히 정서적 교류의 빈도가 다른 대인 관계보다 잦고, 상대방이 제공하는 공감과 지지의 중요도가 높은 부부 관계 내에서의 정서억제는 관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Impett 외(2014)의 연구에 참여한 부부들은 배우자가 감정을 숨긴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배우자가 진실하지 못하다고 여겼으며 이는 관계만족도의 저하를 예측하였다. English와 John(2013)의 연구 또한 정서억제의 수준이 낮은 진실성(authenticity)을 통해 결혼만족도 저하를 예측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Velotti 외(2016)은 2년간의 종단연구를 통해 정서억제가 장기적으로도 결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을 밝혔다.

요컨대 정서억제는 개인수준, 사회적수준, 그리고 친밀한 대인관계적 수준 모두에서 적응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 내의 정서억제는 흔히 보고되고 있다(Gottman & Levenson, 1999, 2000; Levenson & Gottman, 1985).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한 가지 설명으로,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신경증이 정서억제라는 역기능적 정서조절 전략의 채용을 야기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나아가, 정서억제가 친밀한 관계 내에서 가지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고려하여(English & John, 2013; Impett et al., 2014; Velotti et al., 2016) 배우자의 신경증이 본인의 정서억제 수준을 통해 본인의 관계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 그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3) 신경증과 정서억제간 관계의 조절변인들

정서억제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면 본 연구에서 검증해보고자하는 모델에서 신경증과 정서억제간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여겨지는 변인들이 존재한다. 첫째로, 정서억제 연구에서 드러난 성차, 그리고 관계 중심적 사고에 대한 성차를 고려하면 성별이 유의한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정서억제는 여성보다는 남성에 의해 선호되는 정서 조절 전략이다(LaFrance & Banaji, 1992; Gross & John, 2003). 남편들은 부인을 상대로 자신의 정서를 숨기는 “담쌓기(stonewalling)”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Levenson et al., 1994), 부인들은 강력한 정서를 느낄 때 남편에게 말하고 싶어하며 자세하게 자신의 정서경험을 표현하고자 한다(Burke et al., 1976). 즉, 남성에게 있어 정서억제는 기본적인 정서조절 전략으로, 배우자의 성격과 무관하게 선호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여성의 경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기본적인 전략으로 하며, 이에 정서 표현이 역기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즉, 신경증적 기질의 남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정서억제의 매개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둘째로, 억제되는 정서의 정서가(emotional valence) 또한 배우자의 신경증과 정서억제의 관계 내에서 조절효과를 가질 수 있다. 정서가는 정서를 이루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 대부분의 정서는 정서가를 통해 긍정 정서 혹은 부정 정서로 분류될 수 있다(Barrett, 2006). 긍정 정서는 기분 좋은 경험과 연관된 정서로, 대표적으로는 행복감, 안도감, 쾌감 등이 있다. 반대로 부정 정서는 불쾌한 경험과 연관된 정서로, 대표적으

로 우울, 불안감, 분노 등이 있다. 신경증이 높은 배우자에게 긍정 정서보다 부정 정서를 더 많이 억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양측에게 피해를 입히는 수준까지 상황이 심화될 수 있기에 긍정 정서보다 부정 정서를 더 많이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신경증적 기질이 타인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왜곡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하면 (Bradbury & Fincham, 1991), 신경증이 높은 배우자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드러내는 것은 부정 정서 표출 못지않은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배우자의 신경증이 정서가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정서억제에 영향을 미칠지, 혹은 정서가에 상관없이 모든 정서억제에 영향을 미칠지는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혼인관계 내의 정서억제에 대한 많은 연구(English & John, 2013; Impett et al., 2014; Velotti et al., 2016)는 정서억제의 효과를 정서가에 따라 나누어 분석한 바 없어, 언급했던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억제하는 정서가 어떠한 맥락에서 발생하였는지 또한 중요한 고려대상이다. 본 연구에는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결혼생활에 대해 조사하여 대부분의 변인들이 혼인관계라는 한정적인 맥락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정서억제 수준은 경우에 따라 혼인관계 외 맥락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억제하는 정서가 관계 외 요소(예: 회사, 친구 등)에서 기인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혼인관계 내에서 발생한 정서를 드러내는 것과 혼인관계 외에서 발생한 정서를 드러내는 것은 목적이나 갈등 유발 가능성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집안일 부진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는 것은 문제에 대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반면, 승진의 좌절에 의한 실망감을 드러내는 것은 배우자의 위로를 목적으로 하며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작을 수 있겠다. 그러나 정서억제 수준 척도로 널리 사용되는 Gross와 John(2003)의 정서조절척도 문항 중 정서 발생 맥락을 구분하는 문항이 존재하지 않기에, 이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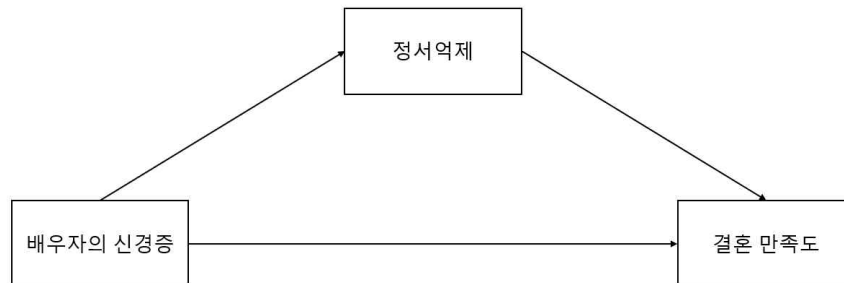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하나의 주 가설과 세 가지 부수적 탐색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두 개의 설문 조사 연구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 1은 한국의 기혼자를 대상으로 하여 주 가설과 첫 번째 부수적 연구 질문(성차)에 대한 검증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 2는 연구

1의 결과가 단순한 표집 오류나 시기적 우연성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의 기혼자를 연구에 포함 시켜 주 가설의 유의성이 반복 검증되는지를 알아보 고자 했다. 나아가, 연구 1의 결과가 보다 넓은 대상에게 일반화될 수 있는지를 검증 하기 위해 미국의 기혼자를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세 가지 부수적 연구 질문 (성차, 정서가, 정서 발생 맥락)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주 가설과 각 부수적 탐색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하에 기술한다.

1) 주분석

배우자의 신경증이 높아질수록 본인의 정서억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이것이 결국 본인의 낮은 결혼만족도로 이어지는지 검증하고자한다. 즉, 배우자의 신경증과 본인의 결혼만족도간의 부정적인 관계를 정서억제가 매개하는지를 두 연구에 걸쳐 반 복검증한다. 구체적인 연구모델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 배우자의 신경증과 결혼만족도 간 정서억제의 매개 모형

2) 부수적 탐색

앞서 소개한 조절변인들을 포함한 조절된 매개 모형을 추가적으로 검증하여 정서억 제의 매개효과가 성별, 정서가, 그리고 정서 발생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지 탐색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정서억제의 매개효과를 성별을 나 누어 분석하고,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부수적 탐색 1). 둘째로, 본 연구 에서는 각 정서가 별 정서억제를 측정하여 부정정서의 억제와 긍정정서의 억제간 차 이가 나타나는 지를 비교 검증하고자 한다 (부수적 탐색 2). 마지막으로, 본연구는 정

서 발생 맥락을 관계 내/외로 나누어 측정하고, 이를 탐색적으로 비교 검증해 볼 예정이다 (부수적 탐색 3) 각 부수적 탐색은 주분석에서 사용하는 매개 모형에 성별, 정서가, 그리고 정서발생맥락을 각각 조절변인으로 포함하는 조절된 매개 모형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검증한다..

III. 연구 1

연구 1에서는 배우자의 신경증 성향과 본인의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확인한 뒤, 두 변인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심리적 기제로서 정서억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밝히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매개효과가 남녀에 따라 그 강도에 차이가 있는지 또한 확인하고자 하였다(부수적 탐색 1). 이를 위하여 서울시에 거주 중인 기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지 방식의 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본인의 성격 및 본인이 인식한 배우자의 성격, 본인의 정서억제 수준, 결혼만족도를 측정하였다.

1.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연구 1은 '서울 시민의 행복 수준 조사 연구'를 위해 2017년 9월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데이터명: seoul_wellbeing_data). 구체적으로 만 18세 이상의 성인 중 기혼 남녀 1,17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데이터수집 전문기관인 데이터스프링을 이용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모집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성별은 남성 546명(46.3%), 여성 633명(53.7%)으로 나타났고 연령대의 분포는 29세부터 60세로 평균 연령은 42.09세($SD = 7.45$)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교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거친 후 시행하였다 (승인번호: 7001988-201708-HR-246-03).

〈표 1〉 연구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 1,179)

구분	빈도	%
성별	남자	546 (46.3)
	여자	633 (53.7)
연령 ¹⁾	29~35세	273 (23.2)
	36~40세	268 (22.7)
	41~45세	254 (21.6)
	46~50세	200 (17)
	51~55세	119 (10.1)
	56~60세	64 (5.4)
혼인 기간	0년 ~10년 이하	600 (29.3)
	10년 초과~20년 이하	367 (52.7)
	20년 초과~30년 이하	237 (15.1)
	30년 초과~	34 (2.9)

2) 측정 도구

결혼만족도: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결혼만족도는 결혼 생활 전반에 대한 현재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Norton(1983)이 기존의 척도들을 이론적으로 검토 및 430명의 실제 응답자의 응답을 경험적으로 분석해 총 6문항으로 개발한 Quality Marriage Index(QMI)를 한국어-영어 이중 언어 사용자의 역번역 검토 과정을 거쳐 한국어로 번역해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본인의 결혼 생활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에서의 만족도를 측정하며 그동안 결혼 및 관계 연구에서 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도구 중 하나로 그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우수하다고 여겨진다 (Calahan, 1997). 구체적인 측정 방법으로는 참가자들은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나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 등의 문장을 읽고 각 문장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도를 7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아니다, 7 = 매우 그렇다)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 간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는 .96이었으며 모든 문항을 통합하여 그 평균값을 계

1) 연구 1의 본 표본 수는 1,179명이나 한 참가자가 연령을 기입하지 않아 〈표 1〉 연령에서는 이를 제외한 1,178명에 대한 특성을 기술하였다.

산하여 분석하였다.

성격: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본인이 인식한 배우자의 신경증 수준은 McCrae와 Costa(1997)가 통합한 성격의 5요인 모델(Big Five)에 기초하여 Gosling 외(2003)가 총 10개 문항으로 개발한 Ten-Item Personality Inventory(TIPI)의 한국어 번안본(Ha & Kim, 2013)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그 간결성에도 불구하고 신뢰도 및 타당도가 검증된 바 있으며(Ehrhart et al., 2009), 신경증 성향(Neuroticism),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성실성(Conscientiousness), 외향성(Extraversion), 그리고 원만성(Agreeableness)에 대해 각 2문항씩 할당하여 측정하고 있다. 이 중 본 연구를 위해 신경증에 해당하는 두 문항을 추출해 분석에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참가자는 “근심걱정이 많은, 마음이 쉽게 상하는”과 역문항인 “차분한, 정서적으로 안정된”이라는 형용사 쌍을 읽고, 각 쌍이 본인의 배우자를 얼마나 잘 표현한다고 여겨지는지를 리커트 7점 척도(1 = 전혀 아니다, 7 = 매우 그렇다)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 중 두 번째 문항인 역문항은 역채점을 적용한 뒤, 두 문항의 점수를 통합해 그 평균값을 계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한편, 기존 연구 중 정서 표현에 외향성과 신경증 성향이 밀접한 연관을 보인다는 결과(Riggio & Riggio, 2002; Lavee & Ben-Ari, 2004; Wang, Shi, & Li, 2009)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외향성과 신경증에 대해서도 측정 후 분석 시 통제변인으로 활용하였다. 이 성격변인들 또한 인식된 배우자의 신경증과 동일하게 Gosling 외(2003)가 개발한 Ten-Item Personality Inventory(TIPI)를 통해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외향성에 해당하는 형용사 쌍은 ‘외향적인, 열정적인’과 역문항인 ‘말수가 적은, 조용한’으로 구성되었으며, 신경증 성향은 질문을 ‘본인’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가로 바꾸었을 뿐 해당 형용사는 앞선 배우자의 신경증과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이 문항들 또한 마찬가지로 7점 리커트 척도로 본인에 대해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각 변인 별 역문항인 두 번째 문항을 역채점하여 통합 후 평균값을 분석하였다.

정서억제: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정서억제 수준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본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정서억제를 사용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Gross와 John(2003)이 개발한 정서조절척도(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ERQ) 총 10

문항에서 정서억제에 해당하는 4문항을 추출하여 한국어-영어 이중 언어 사용자의 역번역 검토 과정을 거쳐 한국어로 번역해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측정 방법으로는 응답자가 “나는 나의 감정을 배우자에게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감정을 조절한다” 등의 문장을 읽고 본인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7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 간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4이었고 모든 문항을 통합하여 그 평균값을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2. 결과

1) 기술통계량 및 상관분석

먼저, 1,179명의 참가자의 주요 변인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상관관계는 <표 2>과 같다.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신경증($r = -.36, p < .001$)과 정서억제($r = -.18, p < .001$)는 모두 결혼만족도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표 2>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N = 1,179$)

변인	평균	표준 편차	1	2	3
1. 배우자의 신경증	3.67	1.02	-	.25**	-.36**
2. 정서억제 수준	3.88	1.25		-	-.18**
3. 결혼만족도	5.04	1.22			-

** $p < .001$

2) 주요 가설 검증: 지각된 배우자의 신경증 수준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정서억제의 매개효과

본 연구는 지각된 배우자의 신경증 수준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본인의 정서억제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v3.4(model 4, Hayes, 2018)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부트스트랩 표본을 5,000번 추출하였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매개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배우자가 신경증이 높다고 지각하는 것은 본인의 정서억제 정도를 유의한 수준에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 = .31, SE = .03, p < .001$) 정서억제 정도는 결혼만족도를 부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

다($B = -.10$, $SE = .03$, $p < .001$). 본인의 정서억제 정도를 통제했을 때, 배우자의 신경증 수준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B = -.40$, $SE = .03$, $p < .001$) 부분매개 모형이 지지되었다(간접효과 LLCI = $-.05$, ULCI = $-.01$). 해당 매개효과는 정서억제에 영향력을 준다고 알려진 본인의 외향성과 신경증을 통제하고도 유의하였다(간접효과 LLCI = $-.05$, ULCI = $-.01$). 또한, 연령, 학력, 인식된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혼인 기간을 통제하고도 유의하였다(간접효과 LLCI = $-.06$, ULCI = $-.02$).

〈표 3〉 지각된 배우자의 신경증 수준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정서억제의 매개효과 검증

매개경로	<i>B</i>	<i>SE</i>	95% LLCI	95% ULCI
총효과	-.43	.03	-.50	-.37
직접효과	-.40	.03	-.47	-.34
배우자의 신경증 → 정서억제 → 결혼만족도	-.03	.01	-.05	-.01

3) 부수적 탐색 분석: 정서억제를 통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지각된 배우자의 신경증 수준이 정서억제를 통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조절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v3.4(model 7, Hayes, 2018)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부트스트랩 표본을 5,000번 추출하였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지각된 배우자의 신경증 수준과 정서억제의 관계를 성별이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20$, $SE = .07$, $p < .01$).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각된 배우자의 신경증 수준과 정서억제의 정적인 관계가 남성보다($B = .16$, $SE = .05$, $p < .01$) 여성에게서($B = .36$, $SE = .04$, $p < .001$) 더 강력하게 나타났다. 또한, 정서억제 정도는 결혼만족도를 부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10$, $SE = .03$, $p < .001$). 즉, 정서억제를 통해 지각된 배우자의 신경증 수준에서 결혼만족도로 가는 경로가 남성(간접효과 LLCI = $-.03$, ULCI < $-.01$)보다 여성(간접효과 LLCI = $-.04$, ULCI < $-.01$)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 조절된 매개효과가 지지되었다($B = -.02$, $SE = .01$, LLCI = $-.04$, ULCI < $-.01$). 이러한 조절된 매개효과는 본인의 외향성과 신경증을 통제하고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2, $SE = .01$, $LLCI = -.04$, $ULCI < -.01$). 또한, 연령, 학력, 인식된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혼인 기간을 통제하고도 유의하였다($B = -.02$, $SE = .01$, $LLCI = -.04$, $ULCI < -.01$).

〈표 4〉 정서억제를 통한 성별의 조절된 매개 효과

	종속 변인: 정서억제		
	<i>B</i>	<i>SE</i>	<i>t</i>
배우자의 신경증	-.04	.44	-.32
성별	-1.35	.26	-5.16***
배우자의 신경증 x 성별	.20	.07	2.91**
	종속 변인: 결혼만족도		
	<i>B</i>	<i>SE</i>	<i>t</i>
배우자의 신경증	-.40	.03	-12.03***
정서억제	-.10	.03	-3.50***

*** $p < .0001$, ** $p < .01$

3. 논의

연구 1에서는 지각된 배우자의 신경증 수준이 정서억제를 통해 결혼만족도로 가는 경로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배우자의 신경증 수준은 본인의 정서억제 정도를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정서억제는 곧 낮은 결혼만족도로 이어졌다. 본 결과는 배우자의 신경증이 결혼 생활에 지니는 부적 영향력에 대한 사전 연구의 결과들을 연장하여, 어떤 경로를 통해 배우자의 신경증이 결혼만족도에 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밝혀냈다. 더 나아가, 정서억제를 통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성별에 따라 정서억제를 통해 배우자의 신경증 정도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결과를 재검증하며 나아가 확장하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하에 기술한다.

IV. 연구 2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결과를 재검증함과 동시에 세 가지 주요한 차별점을 가진다. 첫째, 한국인 참가자뿐 아니라 미국인 참가자 또한 대규모 모집하여 문화적 적용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통계적 검증력 또한 더욱 확보하고자 하였다. 둘째, 억제되는 정서의 정서가에 의해 정서억제의 매개효과가 영향을 받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부수적 탐색 2). 셋째, 억제되는 정서의 발생 맥락(관계 내 혹은 관계 외)을 나누어 각 경우에 정서억제의 매개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부수적 탐색 3). 따라서, 연구 2에서 연구 1과 동일하게 배우자의 신경증 성향과 본인의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확인한 뒤, 두 변인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심리적 기제로서 정서억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매개효과의 성별, 정서가, 정서 발생 맥락에 따른 조절효과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료수집은 한국과 미국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설문으로 진행하였고 주 변인으로는 본인의 성격 및 본인이 인식한 배우자의 성격, 본인의 정서억제 수준, 결혼만족도를 측정하였다.

1.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연구 2는 부부 관계 탐구를 위해 2020년 1월에서 2월경까지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데이터명: motivation&emotion_2020). 연구대상은 한국 및 미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중 기혼자였으며 한국은 데이터스프링, 미국은 Amazon MTurk(온라인 데이터수집 전문기관)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 질문에 해당하는 설문을 완료한 한국의 표본은 총 1,620명, 미국의 표본은 총 1,372명으로 총합 2,992명을 모집하였다. 모집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에 제시하였으며, 성별은 한국의 경우 남성 611명(37.7%)과 여성 1,009명(62.3%), 미국의 경우 남성 597명(43.5%)과 여성 775명(56.5%)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의 분포는 한국은 21세부터 59세로 평균 연령 42.62세($SD = 8.47$), 미국은 20세부터 76세로 평균 연령은 40.94세($SD = 11.40$)로 나타났다. 연구 2 또한 연세대학교 교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거친 후 시행하였다(승인번호: 7001988-202008-HR-669-04).

〈표 5〉 연구 2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 2,992)

구분		한국		미국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611	(37.7)	597	(43.5)
	여자	1,009	(62.3)	775	(56.5)
연령 ²⁾	20~29세	124	(7.7)	220	(16.0)
	30~39세	467	(28.8)	491	(35.8)
	40~49세	639	(39.4)	360	(26.2)
	50~59세	386	(23.8)	187	(13.6)
	60~69세	-	-	93	(6.8)
	70~79세	-	-	19	(1.4)
혼인 기간	0년 ~10년 이하	663	(40.9)	635	(46.3)
	10년 초과~20년 이하	472	(29.1)	413	(30.1)
	20년 초과~30년 이하	381	(23.5)	186	(13.6)
	30년 초과~40년 이하	79	(4.9)	84	(6.1)
	40년 초과~50년 이하	11	(0.7)	40	(2.9)
	50년 초과~60년 이하	8	(0.5)	7	(0.5)

2) 측정 도구

결혼만족도: 연구 2에서도 연구 1과 마찬가지로 Norton(1983)이 개발한 Quality Marriage Index(QMI)를 사용하였다. 미국 설문지의 경우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한국 설문지의 경우 한국어-영어 이중 언어 사용자의 역번역 검토 과정을 거쳐 한국어로 번역해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은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나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 등의 문장을 읽고 각 문장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도를 7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아니다, 7 = 매우 그렇다)로 표시하였다. 각 문항 간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는 .97이었으며 모든 문항을 통합하여 그 평균값을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성격: 연구 2 또한 본인이 인식한 배우자의 신경증 수준을 연구 1과 동일한 Gosling 외(2003)의 Ten-Item Personality Inventory(TIPI)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미

2) 연령 (한국 4명, 미국 2명) 및 혼인 기간 (한국 6명, 미국 7명)을 답변하지 않은 참가자들은 인구통계학 정보에서 제외되었다.

국 설문의 경우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한국 설문의 경우 한국어 번안본(Ha & Kim, 2013)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참가자는 “근심걱정이 많은, 마음이 쉽게 상하는”과 역문항인 “차분한, 정서적으로 안정된”라는 형용사 쌍을 읽고, 각 쌍이 본인의 배우자를 얼마나 잘 표현한다고 여겨지는지를 리커트 7점 척도(1 = 전혀 아니다, 7 = 매우 그렇다)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역문항을 역채점 후 두 문항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더불어 앞선 연구 1과 동일하게 통제변인으로 본인의 신경증 및 외향성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이 또한 Gosling 외(2003) Ten-Item Personality Inventory로 측정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외향성에 해당하는 형용사 쌍은 ‘외향적인, 열정적인’과 역문항인 ‘말수가 적은, 조용한’이었고, 신경증에 해당하는 형용사 쌍은 앞선 배우자 신경증 문항과 동일하였다. 7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아니다, 7 = 매우 그렇다)로 본인에 대해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역문항은 역채점하여 통합 후 평균값을 분석하여 사용하였다.

정서억제: 정서억제의 경우, 연구 1과 달리 정서가 세 조건(모든 정서가, 양적 정서, 부정적 정서) X 정서 발생 맥락 세 조건(모든 맥락, 관계 내부, 관계 외부) = 총 9조건에 참여자들을 무선할당하여 진행하였다.

우선, 정서가에 대해서는 모든 정서가 조건의 문항으로 연구 1에서 사용한 Gross와 John(2003)의 정서조절척도 4문항을 사용하여 ‘나는 나의 감정을 배우자에게 드러내지 않으므로써 감정을 조절한다’, ‘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배우자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나는 나의 감정을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배우자에게 표현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문장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답하도록 하였다. 긍정적 정서 조건의 문항으로는 ‘나는 나의 긍정적인 감정을 배우자에게 드러내지 않으므로써 감정을 조절한다’, ‘나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배우자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나는 나의 긍정적인 감정을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배우자에게 표현하지 않으려고 한다’를 사용해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마지막 부정적 정서 조건의 문항으로는 ‘나는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배우자에게 드러내지 않으므로써 감정을 조절한다’, ‘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배우자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나는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배우자에게 표

현하지 않으려고 한다'를 사용해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한편, 이와 동시에 정서 발생 맥락 조건에 대해서는 질문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조건화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모든 주제 조건의 경우 '다음의 문장들을 읽고, 각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을 제시한 후 앞선 정서가 조건에 기술된 각 문항에 대한 본인의 동의 정도를 표시하게 하였다. 반면, 관계 내부 조건에는 '다음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문장들을 읽고, 각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을, 관계 외부 조건에는 '다음은 가정 관계 외부(ex. 직장 혹은 친구 관계 등등)에서 일어난 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문장들을 읽고, 각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을 제시한 뒤, 앞선 문단의 네 가지 문장들에 대한 동의 정도를 답하도록 하였다.

모든 문항은 리커트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를 사용해 측정하였으며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는 한국의 경우 .93, 미국의 경우 .94로 나타났다. 각 조건별 네 문항에 대해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2. 결과

1) 기술통계량 및 상관분석

먼저, 1,620의 한국인 참가자와 1,372명의 미국인 참가자의 주요 변인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상관관계는 <표 4>과 같다. 모든 문화권에서 배우자의 신경증(한국: $r = -.38, p < .001$, 미국: $r = -.39, p < .001$)과 정서억제(한국: $r = -.23, p < .001$, 미국: $r = -.28, p < .001$)는 모두 결혼만족도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표 6>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N한국 = 1,620, N미국 = 1,372)

국가	변인	평균	표준 편차	1	2	3
한국	1. 배우자의 신경증	3.61	1.14	-	.17**	-.38**
	2. 정서억제 수준	3.52	1.48		-	-.23**
	3. 결혼만족도	5.18	1.43			-

국가	변인	평균	표준 편차	1	2	3
미국	1. 배우자의 신경증	3.40	1.53	-	.27**	-.39**
	2. 정서억제 수준	3.23	1.64		-	-.28**
	3. 결혼만족도	5.80	1.32			-

** $p < .001$

2) 주요 가설 검증: 지각된 배우자의 신경증 수준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정서억제의 매개효과

연구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각된 배우자의 신경증 수준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정서억제의 매개효과 분석하였다. 매개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한국에서 지각된 배우자의 신경증 수준은 본인의 정서억제 정도를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 = .22$, $SE = .03$, $p < .001$) 정서억제 정도는 결혼만족도를 부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 = -.17$, $SE = .02$, $p < .001$). 배우자의 신경증 수준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본인의 정서억제 정도를 통제했을 때도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B = -.44$, $SE = .03$, $p < .001$) 부분매개 모형이 지지되었다(간접효과 LLCI = $-.05$, ULCI = $-.02$). 지각된 배우자의 신경증 수준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정서억제의 매개효과는 본인의 외향성과 신경증을 통제하고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간접효과 LLCI = $-.04$, ULCI = $-.02$). 본 결과는 연령, 학력, 그리고 혼인 기간을 통제하고도 유의하였다(간접효과 LLCI = $-.04$, ULCI = $-.02$).

미국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지각된 배우자의 신경증 수준은 본인의 정서억제 정도를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했으며($B = .29$, $SE = .03$, $p < .001$) 정서억제 정도는 결혼만족도를 부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 = -.15$, $SE = .02$, $p < .001$). 본인의 정서억제 정도를 통제했을 때도 배우자의 신경증의 직접효과는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B = -.30$, $SE = .02$, $p < .001$) 부분매개 모형이 지지되었다(간접효과 LLCI = $-.06$, ULCI = $-.03$). 해당 결과는 본인의 외향성과 신경증을 통제하고도 유의하였다(간접효과 LLCI = $-.07$, ULCI = $-.04$). 또한, 연령, 학력, 그리고 혼인 기간을 통제하고도 유의하였다 (간접효과 LLCI = $-.06$, ULCI = $-.03$).

〈표 7〉 지각된 배우자의 신경증 수준과 결혼만족도와 관계에서 정서억제의 매개효과 검증

국가	매개경로	<i>B</i>	<i>SE</i>	95% LLCI	95% ULCI
한국	총효과	-.47	.03	-.53	-.42
	직접효과	-.44	.03	-.49	-.38
	배우자의 신경증 → 정서억제 → 결혼만족도	-.04	.01	-.05	-.02
미국	총효과	-.34	.02	-.38	-.30
	직접효과	-.30	.02	-.34	-.26
	배우자의 신경증 → 정서억제 → 결혼만족도	-.04	.01	-.06	-.03

3) 부수적 탐색 분석 1: 정서억제를 통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연구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각된 배우자의 신경증 수준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 있어 정서억제를 통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조절된 매개 모형의 결과는 〈표 6〉와 같다.

먼저, 한국에서는 지각된 배우자의 신경증 수준과 성별의 상호작용이 정서억제 정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B = -.15$, $SE = .06$, $p = .02$). 구체적으로, 한국에서는 지각된 배우자의 신경증 수준과 정서억제의 정적인 관계가 남성보다($B = .10$, $SE = .05$, $p < .05$) 여성에게서($B = .25$, $SE = .04$, $p < .001$) 더 강력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정서억제 정도는 결혼만족도를 부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17$, $SE = .02$, $p < .001$). 즉, 한국에서는 정서억제를 통해 배우자의 신경증에서 결혼만족도로 가는 경로가 남성(간접효과 LLCI = $-.04$, ULCI $< .01$)에게서는 약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95% 유의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여성(간접효과 LLCI = $-.06$, ULCI = $-.02$)에게는 더 강하게 나타나 조절된 매개효과가 지지되었다($B = .03$, $SE = .01$, LLCI $< .01$, ULCI = $.05$). 조절된 매개효과 결과는 본인의 외향성과 신경증을 통제해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3$, $SE = .01$, LLCI $< .01$, ULCI = $.06$).

한편, 미국에서는 한국과 같이 정서억제 정도가 결혼만족도를 부적으로 예측하였으나($B = -.15$, $SE = .02$, $p < .001$), 지각된 배우자의 신경증 수준과 성별의 상호작용이 정서억제 정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않았다($B = -.02$, $SE = .06$, $p = .71$). 즉, 배우자의 신경증과 결혼만족도 관계를 정서억제가 매개하는 효과는 남성($B = -.04$, $SE = .01$, LLCI $< -.06$, ULCI = $-.02$)과 여성($B = -.04$, $SE = .01$, LLCI $< -.06$, ULCI =

-.03)에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서억제를 통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B < -.001$, $SE = .01$, $LLCI = -.01$, $ULCI = -.02$). 이러한 결과는 본인의 외향성과 신경증을 통제해도 동일하게 나타났다($B < -.01$, $SE = .01$, $LLCI = -.01$, $ULCI = -.02$).

4) 부수적 탐색 분석 2: 정서억제를 통한 정서가의 조절된 매개효과

지각된 배우자의 신경증 수준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 있어, 정서가를 통한 정서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모든 문화권에서 조절된 매개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아(한국: $B < .01$, $SE = .01$, $LLCI = -.01$, $ULCI = .02$, 미국: $B < -.01$, $SE = .01$, $LLCI = -.01$, $ULCI = .01$), 정서가와 상관없이 정서억제가 배우자의 신경증 수준과 결혼만족도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 부수적 탐색 분석 3: 정서억제를 통한 정서 발생 맥락의 조절된 매개효과

지각된 배우자의 신경증 수준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 있어, 정서억제를 통한 정서 발생 맥락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모든 문화권에서 조절된 매개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아(한국: $B = .01$, $SE = .01$, $LLCI < -.01$, $ULCI = .02$, 미국: $B < .01$, $SE < .01$, $LLCI < -.01$, $ULCI = .02$), 정서 발생 맥락과 상관없이 정서억제가 배우자의 신경증 수준과 결혼만족도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8〉 정서억제를 통한 성별의 조절된 매개 효과

국가		종속 변인: 정서억제		
		<i>B</i>	<i>SE</i>	<i>t</i>
한국	배우자의 신경증	.40	.09	4.28***
	성별	1.16	.25	4.67***
	배우자의 신경증 x 성별	-.15	.06	-2.29*
		종속 변인: 결혼만족도		
		<i>B</i>	<i>SE</i>	<i>t</i>
	배우자의 신경증	-.44	.03	-15.17***
	정서억제	-.17	.02	-7.59***

국가		종속 변인: 정서억제		
		<i>B</i>	<i>SE</i>	<i>t</i>
미국	배우자의 신경증	.29	.08	3.48***
	성별	.48	.22	2.16*
	배우자의 신경증 x 성별	-.02	.08	-.37
		종속 변인: 결혼만족도		
		<i>B</i>	<i>SE</i>	<i>t</i>
	배우자의 신경증	-.30	.02	-13.65***
	정서억제	-.15	.02	-7.31***

*** $p < .0001$, ** $p < .01$ * $p < .05$

3. 논의

연구 2를 통해 지각된 배우자의 신경증 수준이 정서억제를 통해 결혼만족도를 낮춘다는 것을 재검증하였다. 정서억제의 매개효과는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나, 이러한 현상이 어느 하나에 문화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다. 더불어, 정서억제의 매개효과는 정서가와 정서 발생 맥락에 상관없이 나타나, 정서억제를 통해 배우자의 신경증이 결혼만족도를 낮추는 효과가 어느 하나의 조건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가로, 한국에서는 정서억제를 통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검증되어, 지각된 배우자의 신경증 수준이 정서억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성에게 강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정서억제를 통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아, 배우자의 신경증과 정서억제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 효과가 문화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신경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정서억제라는 행동 특성에 의해 매개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매개 효과가 여러 변인에 따라 조절되는지 부

차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총 두 번에 걸쳐 기혼자를 대상으로 설문이 이뤄졌으며, 첫 번째 모집은 1,179명의 한국인, 두 번째 모집에서는 1,620명의 한국인과 1,372명의 미국인이 온라인 설문에 참여해 성격 특성 척도, 정서억제 척도, 결혼만족도 척도에 응답하였다. 수집된 응답을 바탕으로 변인 간 매개효과와 성별, 정서가, 정서 발생 맥락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가설에 대한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배우자의 신경증은 낮은 결혼만족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정서억제가 두 변인을 유의하게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즉, 배우자의 신경증 수준이 더 높을수록 정서억제 수준이 높고, 이는 결혼만족도의 감소와 관계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규모 표본 분석을 바탕으로 신경증이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 결과(McNulty, 2008)를 재검증함과 동시에 해당 관계를 매개하는 구체적인 변인을 밝혀 기존의 논의를 확장한다는 큰 의의가 있다. 매개 변인이 정서억제라는 행동적 특성이라는 점은 부부 상담 분야에 구체적인 적용점을 제공한다. 전 생애에 걸쳐 일관적인 특징을 가지는 성격에 비해(Conley, 1985) 행동특성은 개입을 통한 교정의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Hofmann et al., 2012). 따라서 상대방의 신경증으로부터 발생하는 정서억제에 대해 다른 바람직한 정서 조절 전략을 소개하고 직접 사용하도록 훈련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이며, 효과 크기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 부수적 탐색의 경우, 정서억제의 매개 효과에 있어서 성별의 조절 효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구 1에서는 배우자의 신경증이 정서억제에 미치는 영향이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한국의 경우 동일한 결과가 산출되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서 표현 및 정서 조절 전략에서의 성차와 사회 역할 이론에 따른 자아관의 성차는 배우자의 신경증이 정서억제로 이어지는 경로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구 1과 연구 2의 한국 집단에서 확인된 성별의 조절 효과는 선행 연구와 상응하는 결과이며, 나아가 정서억제가 여성들에 의해 주로 사용되지 않는 정서 조절 전략임에도 이러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상대방의 성격 변인이 정서 조절 전략에 그만큼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연구 2의 미국인 집단의 경우, 배우자의 신경증에 따른 정서억제의 정도가 남녀 모두에게서 비슷한 정도로 나타나 성별의 조절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ischer 외(2004)의 성차에 대한 문화차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미국 표본의 성

차 부재에 대한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들에 따르면, 성 역할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어있는 문화와 그렇지 않은 문화에서는 남성과 여성에 대해 기대하는 정서 표현이 다르며, 이는 실제로 이들이 표출하는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미국인 집단에서 남성과 여성 간 정서억제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은 미국의 결혼문화에서 비교적 성 역할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사실로부터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성별의 조절효과에 대한 결과는 탐색적 속성이 강하며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해당 가능성을 고려하여 문화에 따른 성별의 조절 효과를 더욱 구체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겠다.

정서억제의 매개 효과가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는 부부 상담 분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이 남편의 신경증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섬세하고 입체적인 개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편의 신경증 수준이 아주 높은 경우, 여성이 상당한 수준의 정서억제를 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서억제 정도에 따라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확장해 어떤 심리적 기제가 정서억제를 유발하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부부 상담에 있어서 더욱 세밀하고 정확한 개입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상대방의 신경증과 정서억제 사이에 어떤 매개 변인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부수적 탐색의 경우, 억제하는 정서의 정서가의 조절 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서억제의 매개 효과는 억제하는 정서의 정서가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배우자의 신경증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정서가(긍정 혹은 부정)에 관계없이 정서억제가 나타남을 시사한다. 정서 및 정서 조절에 대한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정서의 정서가(양적, 부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이며 이를 반영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Gruber, Hay, & Gross, 2014; Young, Sandman, & Craske, 2019). 본 연구의 정서가에 대한 탐색은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정서억제에 있어서의 정서가에 대한 깊은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탐색적 검증 결과만으로는 정서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규명하기 어렵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더욱 깊이 조사해보는 것이 권장되는 바이다.

세 번째 부수적 탐색의 경우, 정서 발생 맥락의 조절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인지된 배우자의 신경증에 따라 정서억제를 하는 수준은 정서의

발생 맥락(관계 내부 혹은 관계 외부)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기존 정서억제 연구에서 정서의 발생 맥락에 대한 탐구는 이루어진 바 없기에 본 연구의 발견은 이에 관련한 후속 연구의 초석이 될 수 있겠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서 발생 맥락 변인은 해당 정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묻는 회고적 질문에 답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참가자의 기억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왜곡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또한, 정서 경험을 관계 안과 관계 밖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 관계 안팎의 상황에 전반적으로 얽혀 있는 정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여러 집단에 속해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는 개인의 정서 경험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해 여러 사회관계에서 발생한 다양한 정서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유익하겠다.

한편 부부 연구임에도 양자적 데이터(dyadic data)가 아닌 자기보고 데이터(self-report data)를 이용했다는 점은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이 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성격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배우자가 직접 보고한 성격이 아닌 본인이 평가한 배우자의 성격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타인이 인식한 성격이 스스로 보고한 성격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참가자가 인식한 배우자의 신경증 성향이 배우자가 보고한 신경증 성향과 괴리를 보일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자기보고에 의존한 정보 수집 방식은 이미 의사소통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를 더 신경증적이라고 보고하는 경우 등의 혼재변수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성격에 대한 자기보고 데이터만이 가지는 정보가는 분명히 존재한다. 한 개인이 경험하는 모든 사건은 본인의 인식 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 안의 개인은 상대방의 실제 모습보다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 지각하고 해석한 결과물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실제 신경증 수준보다는 배우자가 어떤 신경증적 특성을 보였으며, 그것이 본인에게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를 보고한 자기보고 데이터가 더욱 정확한 결과를 예측할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상대방과의 유사성(Sels et al., 2020), 긍정 경험에 대한 반응성(Gable et al., 2004), 감사 표현 (Park et al., 2019)이 친밀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연구자들은 상대방이 실제로 보고한 데이터가 아닌 스스로가 지각한 자기보고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또한 Park 외(2019)가 진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감사 표현에 대해 스스

로가 인지하는 상대방의 감사 표현 정도와 상대방이 실제로 보고한 감사 표현 정도를 비교했을 때 스스로가 인지해 보고한 자기 보고 데이터가 관계만족도를 더 잘 예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본인이 인지하는 배우자의 신경증 정도를 주요 변인으로 채택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양자적 보고 방식을 함께 사용해 본 연구 결과가 재검증되는지 확인하는 등 현상을 더욱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데이터 수집에서도 추후 연구에서 보완 가능한 점을 제언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가 횡단적 데이터만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데이터를 이용해 상대방의 신경증과 정서억제가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 추적 조사할 필요가 있다. 결혼만족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기존 연구를 고려하면 (Lavner & Bradbury, 2010), 종단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신경증과 정서억제가 미치는 효과가 장기적으로 이혼까지 예측할 수 있는지 등을 탐구하는 것은 앞으로 부부 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자기보고 설문 방식만을 채택한 본 연구를 보완해 후속 연구에서는 관찰적 자료 수집을 통한 다방면의 자료 분석이 권장된다. 특히 정서억제 전략을 사용했을 때 행동적 표현과 주관적 경험이 매우 다르다는 기존 연구 결과 (John & Gross, 2004)를 참고하여 부부간의 의사소통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면 배우자의 신경증이 정서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세분화하여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제3의 관찰자에 의해 실제로 신경증이 높다고 평가된 배우자에 대해서 정서억제의 매개 효과와 성별의 조절 효과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과적 설명에는 한계가 있다. 부부관계와 성격, 정서 조절 모두 실험적 조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종단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참가자 간 비교연구가 아닌 참가자 내 비교연구를 설계하는 것이 부분적으로나마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배우자의 신경증과 결혼만족도의 부적 상관관계를 매개하는 주요 변인을 밝히고, 해당 매개 효과를 조절할 수 있는 변인을 단계별로 탐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보다 큰 표본집단 수준에서 재검증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신경증과 결혼만족도 간 부적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심리적 기제를 밝혔다. 점에서 해당 연구 분야의 논의 차원을 확장하는 주요한 학술적 의의가 있다. 특히, 선행 연구 및 관련 주제 연구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는 문화가 다른 두 표본을 모집했다는 점과 표본 크기가 매우 크다는 두 가지 차별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

는 기존 연구를 포함한 해당 결과가 보다 다양한 집단에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억제하는 정서의 정서가와 정서억제 상황 변인을 세분화하지 않은 선행 연구의 한계 점을 극복하여 여러 상황에서 정서억제의 매개 효과를 확인했다는 추가적인 의의 또한 부부 연구 분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천적 의의 측면에서, 행동적 특성인 정서억제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해 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부부 상담 분야에서 실용적인 적용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후속 연구에서 본 연구의 성격 변인 측정 방식과 데이터 수집 방식을 보완하여 보다 통합적인 이해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Ahmadi, L., L. Panaghi, M. S. Sadeghi and M. S. Zamani Zarchi. 2020. "The Mediating Role of Personality Fac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of Origin Health Status and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Research and Health* 10(4): 239-248.
- Aldao, A., S. Nolen-Hoeksema and S. Schweizer. 2010. "Emotion-regulation strategies across psychopathology: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2): 217-237.
- Barrett, L. F. 2006. "Solving the emotion paradox: Categorization and the experience of emo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1): 20-46.
- Bradbury, T. N. and F. D. Fincham. 1991. "A contextual model for advancing the study of marital interaction." *Cognition in close relationships* 127-147.
- Brase, G. L. and E. C. Guy. 2004. "The demographics of mate value and self-este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2): 471-484.
- Burke, R. J., T. Weir and D. Harrison. 1976. "Disclosure of problems and tensions experienced by marital partners." *Psychological Reports* 38(2): 531-542.
- Butler, E. A., B. Egloff, F. H. Wilhelm, N. C. Smith, E. A. Erickson and J. J. Gross. 2003. "The social consequences of expressive suppression." *Emotion* 3(1): 48.
- Calahan, C. A. 1997.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and concurrent validity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and the Quality Marriage Index." *Psychological Reports* 80(1): 49-50.
- Caughlin, J. P., T. L. Huston and R. M. Houts. 2000. "How does personality matter in marriage? An examination of trait anxiety, interpersonal negativ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326.
- Clark, M. S. and E. J. Finkel. 2005. "Willingness to express emotion: The impact of relationship type, communal orientation, and their interaction." *Personal Relationships* 12(2): 169-180.
- Conley, J. J. 1985. "Longitudinal stability of personality traits: A multitrait-

- multimethod-multioccasion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5): 1266.
- Costa Jr, P. T., R. R. McCrae and G. G. Kay. 1995. "Persons, places, and personality: Career assessment using the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3(2): 123-139.
- Donnellan, M. B., R. D. Conger and C. M. Bryant. 2004. "The Big Five and enduring marriag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8(5): 481-504.
- Dyrenforth, P. S., D. A. Kashy, M. B. Donnellan and R. E. Lucas. 2010. "Predicting relationship and life satisfaction from personality in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s from three countries: the relative importance of actor, partner, and similarity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9(4): 690.
- Edlund, J. E. and B. J. Sagarin. 2010. "Mate value and mate preferences: An investigation into decisions made with and without constrai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9(8): 835-839.
- Ehrhart, M. G., K. H. Ehrhart, S. C. Roesch, B. G. Chung-Herrera, K. Nadler and K. Bradshaw. 2009. "Testing the latent factor structure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Ten-Item Personality Invento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8): 900-905.
- Fischer, A. H., P. M. Rodriguez Mosquera, A. E. Van Vianen and A. S. Manstead. 2004. "Gender and culture differences in emotion." *Emotion* 4(1): 87.
- English, T. and O. P. John. 2013. "Understanding the social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The mediating role of authenticity for individual differences in suppression." *Emotion* 13(2): 314.
- Fisher, T. D. and J. K. McNulty. 2008. "Neuroticism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mediating role played by the sexual relationship."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1): 112.
- Gable, S. L., H. T. Reis, E. A. Impett and E. R. Asher. 2004. "What do you do when things go right? The 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benefits of sharing positive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2): 228.
- Gosling, S. D., P. J. Rentfrow and W. B. Swann Jr. 2003. "A very brief measure of the Big-Five personality domain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7(6): 504-528.

- Gottman, J. M. and R. W. Levenson. 1999. "How stable is marital interaction over time?" *Family process* 38(2): 159-165.
- Gottman, J. M. and R. W. Levenson. 2000. "The timing of divorce: Predicting when a couple will divorce over a 14-year peri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3): 737-745.
- Gross, J. J. 1998. "Antecedent-and response-focused emotion regulation: divergent consequences for experience, expression, and physi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1): 224.
- Gross, J. J. and O. P. John.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348.
- Gross, J. J. and R. W. Levenson. 1993. "Emotional suppression: physiology, self-report, and exp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6): 970.
- Gruber, J., A. C. Hay and J. J. Gross. 2014. "Rethinking emotion: Cognitive reappraisal is an effective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in bipolar disorder." *Emotion* 14(2): 388.
- Ha, S. E. and S. Kim. 2013.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Evidence from South Korea."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1(1): 341-359.
- Hayes, A. F. 2018. "Partial, conditional, and moderated moderated mediation: Quantification, inference, and interpreta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85: 4-40.
- Hofmann, S. G., A. Asnaani, I. J. Vonk, A. T. Sawyer and A. Fang. 2012. "The efficacy of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A review of meta-analyse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6(5): 427-440.
- Impett, E. A., B. M. Le, A. Kogan, C. Oveis and D. Keltner. 2014. "When you think your partner is holding back: The costs of perceived partner suppression during relationship sacrifice."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5(5): 542-549.
- Jackson, D. C., J. R. Malmstadt, C. L. Larson and R. J. Davidson. 2000. "Suppression and enhancement of emotional responses to unpleasant pictures." *Psychophysiology* 37(4): 515-522.
- John, O. P. and J. J. Gross. 2004. "Healthy and unhealthy emotion regulation:

- Personality processes, individual differences, and life span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72(6): 1301-1334.
- Kalokerinos, E. K., K. H. Greenaway, D. J. Pedder and E. A. Margetts. 2014. “Don’t grin when you win: The social costs of positive emotion expression in performance situations.” *Emotion* 14(1): 180.
- Karney, B. R. and T. N. Bradbury. 1997. “Neuroticism, marital interaction, and the trajectory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5): 1075.
- Karney, B. R. and T. N. Bradbury. 2000. “Attributions in marriage: State or trait? A growth curve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295.
- Kashdan, T. B., J. R. Volkmann, W. E. Breen and S. Han. 2007. “Social anxiety and romantic relationships: The costs and benefits of negative emotion expression are context-dependent”.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1(4): 475-492.
- Kelly, E. L. and J. J. Conley. 1987. “Personality and compatibility: A prospective analysis of marital stabi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1): 27.
- Keltner, D., J. Haidt and M. N. Shiota. (2006). “Social functionalism and the evolution of emotions.”
- LaFrance, M. and M. Banaji. 1992. “Toward a reconsideration of the gender-emotion relationship.” *Emotion and social behavior* 14: 178-201.
- Lavee, Y. and A. Ben-Ari. 2004.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neuroticism: Do they predict marital qualit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8(4): 620.
- Lavner, J. A. and T. N. Bradbury. 2010. “Patterns of change in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newlywed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5): 1171-1187.
- Levenson, R. W., L. L. Carstensen and J. M. Gottman. 1994. “Influence of age and gender on affect, physiology, and their interrelations: A study of long-term marriag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1): 56.
- Levenson, R. W. and J. M. Gottman. 1985. “Physiological and affective predictors of change in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1): 85.

- Malouff, J. M., E. B. Thorsteinsson, N. S. Schutte, N. Bhullar and S. E. Rooke. 2010.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intimate partners: A meta-analysi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4(1): 124-127.
- McCrae, R. R. and P. T. Costa. 1987. "Validation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cross instruments and observ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1): 81.
- McNulty, J. K. 2008. "Neuroticism and interpersonal negativity: The independent contributions of perceptions and behavior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11): 1439-1450.
- Norton, R. 1983. "Measuring marital quality: A critical look at the dependent variab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 141-151.
- Park, Y., E. A. Impett, G. MacDonald and E. P. Lemay Jr. 2019. "Saying "thank you": Partners' expressions of gratitude protect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commitment from the harmful effects of attachment insecur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7(4): 773.
- Park, Y., M. D. Johnson, G. MacDonald and E. A. Impett. 2019. "Perceiving gratitude from a romantic partner predicts decreases in attachment anxiety." *Developmental psychology* 55(12): 2692.
- Richards, J. M., E. A. Butler and J. J. Gross. 2003. "Emotion regula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The cognitive consequences of concealing feeling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0(5): 599-620.
- Richards, J. M. and J. J. Gross. 1999. "Composure at any cost? The cognitive consequences of emotion supp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8): 1033-1044.
- Richards, J. M. and J. J. Gross. 2000. "Emotion regulation and memory: the cognitive costs of keeping one's co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3): 410.
- Riggio, H. R. and R. E. Riggio. 2002. "Emotional expressiveness,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A meta-analysis."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26(4): 195-218.
- Rusting, C. L. and R. J. Larsen. 1997. "Extraversion, neuroticism, and

- susceptibility to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A test of two theoretical mode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2(5): 607-612.
- Sayehmiri, K., K. I. Kareem, K. Abdi, S. Dalvand and R. G. Gheshlagh.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raits and marital satisfactio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BMC psychology* 8(1): 15.
- Sels, L., Y. Ruan, P. Kuppens, E. Ceulemans and H. Reis. 2020. "Actual and perceived emotional similarity in couples' daily live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11(2): 266-275.
- Shiota, M. N. and R. W. Levenson. 2007. "Birds of a feather don't always fly farthest: Similarity in Big Five personality predicts more negative marital satisfaction trajectories in long-term marriages." *Psychology and Aging* 22(4): 666.
- Srivastava, S., M. Tamir, K. M. McGonigal, O. P. John and J. J. Gross. 2009. "The social costs of emotional suppression: A prospective study of the transition to colle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4): 883.
- Terman, L. and P. Battenweiser. 1935. "Relation of marital happiness to husband-wife resemblances in trait score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6: 267-288.
- Terman, L. M., P. Battenwieser, L. W. Ferguson, W. B. Johnson and D. P. Wilson. 1938. *Psychological factors in marital happiness*. New York: McGraw-Hill.
- Thompson, E. R. 200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ternational English big-five mini-marke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6): 542-548.
- Velotti, P., S. Balzarotti, S. Tagliabue, T. English, G. C. Zavattini and J. J. Gross. 2016. "Emotional suppression in early marriage: Actor, partner, and similarity effects on marital qualit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3(3): 277-302.
- Von Culin, K. R., J. L. Hirsch and M. S. Clark. 2018. "Willingness to express emotion depends upon perceiving partner care." *Cognition and Emotion* 32(3): 641-650.
- Wang, L., Z. Shi and H. Li. 2009. "Neuroticism, extraversion, emotion regulation, negative affect and positive affect: The mediating roles of

reappraisal and suppression.”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7(2): 193-194.

Young, K. S., C. F. Sandman and M. G. Craske. 2019.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 regulation in adolescence: links to anxiety and depression.” *Brain sciences* 9(4): 76.

Zaleski, Z. and M. Galkowska. 1978. “Neuroticism and marital satisfact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16(4): 285-286.

(2021. 04. 13. 접수, 2021. 05. 21. 심사, 2021. 06. 20. 채택)

Abstract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al Supp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pouse's Neuroticism and Marital Well-Being

*Jeongwoo J. Kim, Hanbyeol E. Lee, HyeWon Yang,
Jeong Eun Cheon, Yong-Hoon Kim
(Yonsei University)*

Although a neurotic spouse has been widely known to have deleterious effects on one's marital well-being, few have examined the specific psychological mechanism that causes the effect. Thus, the current study aimed to examine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al supp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neuroticism of one's spouse and one's own marital satisfaction. Two online surveys were done on married individuals from two cultures (Study 1, South Korea, N=1,179; Study 2, South Korea & U.S., N=2,992). As a result, there was a significant mediation effect of emotional supp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pouse's neuroticism and marital satisfaction: perceived neuroticism of one's spouse significantly predicted one's emotion suppression which, in turn, led to lowered marital satisfaction. This suggests that the reason for dissatisfaction in marriage with a spouse of neurotic personality may be attributed to strong emotional inhibition in the relationship. Moreover, the current study explored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emotional valence, and emotion generation context on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suppression, yet only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was partially supported. Specifically, only among Korean participants, emotional suppression more strongly predicted spouse's neuroticism in women (vs. men), thereby intensifying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spouse's neuroticism and one's own marital satisfaction.

Key words: emotional suppression, neuroticism, marital satisfaction, marriage